

日書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 方法에 관한 問題와 對策

金 致 雨*

- I. 序 論
- II. 日書目錄의 實態
 - A. 標目을 かな로 表記하는 것
 - B. 標目을 로마자로 表記하는 것
 - C. 標目을 한글로 表記하는 것
 - 1. 標目을 日本音 式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것
 - 2. 標目을 우리음 식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것
- III. 現實的인 問題點
 - A. 整理者와 閱覽者의 日語解得 能力 問題
 - B. 表記傾向
- IV. 日書目錄에 있어서 標目的 表記 方案
 - A. 人名標目
 - B. 書名標目
-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 각 圖書館에 受入되는 圖書는 大別하여 國內書, 日書, 西書로 三區分된다. 國內書나 西書는 目錄作業에 있어서 큰 隘路를 겪지 않고 있으나 日書는 그렇지 못하다. 그 主된 理由는 日書는 著者나 書名이 거의 漢字나 漢字 爲主로 되어 있는데, 그 漢字를 日語로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標目的 表記에 統一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日書 標目을 日本音 式으로 읽어 표기하는 目錄에 있어서는

* 釜山女子大學 圖書館學科

2 韓國비블리아 第4輯

同一한 圖書의 表記樣式이 다른 것을 종종 본다. 이것은 標目을 原音대로 表記하려고 하다가 빚어지는 副作用이다. 同一한 圖書의 表記가 달라지면 日語에 能通한 사람이라도 圖書의 檢索이 어려운데 하물며 未熟한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整理者나 閱覽者에게 부담을 주는 日書의 整理方式은 再考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日語에 익숙한 분들도 漢字로 된 著者나 書名을 읽고 表記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인데, 하물며 日語를 外國語로 조금씩 배운 젊은 世代에게 있어서 日書를 日本音에 쫓아서 整理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더 日語에 能通치 못한 司書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目錄이란 항상 排列을 前提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통일된 樣式으로 標目を 표기해 주지 않으면 所期의 成果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新聞이나 雜誌 따위에서 東京을 도오쿄오, 도쿄, 토오쿄오, 도쿄라 表記하여도 識別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目錄의 標目에서 그와 같이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同一한 저자의 圖書目錄이 表記에 따라서 分散 排列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人間の 記憶이란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리 조심하여도 日書의 著者나 書名을 一目瞭然하게 表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理論的으로 日書를 整理하는데는 일본음 식으로 表記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분들이 많으나 實際的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理論的으로는 우수한 目錄이라고 할 수 있으나 整理者나 閱覽者를 外面한 目錄을 고집하는 것은 現實을 外面한 處事다 하지 않을 수 없다. 目錄은 理論만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많다. 특히 日書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많은 圖書館에서는 漢字로 된 日書의 著者나 書名의 표목을 우리 漢字音 式으로 읽어한글로 譯字表記하여 주고 있으나 かな와 混用되고 있는 서명의 경우에는 漢字는 우리음으로, かな는 일본음으로 表記을 하여 變則的으로 處理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日書整理에 變革을 갈구하는 순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現在 各 圖書館에서 作成하고 있는 日書目錄의 實態를 分析 檢討하여 보고 日書의 著者나 書名을 우리 漢字音 式으로 읽어한글로 表記하는데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서 體系있게 整理할 수 있는

일서목록에 있어서 표목의 표기방법에 관한 문제와 대책 5
方法을 提示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II. 日書目錄의 實態

現在 各 圖書館의 日書目錄에 대한 實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標目を かな로 表記하는 것

著者名標目이나 書名標目を 모두 かな로 表記하여 目錄을 作成하는 方法이다.

예) カトウ, シュウコウ.
圖書分類法要說, 加藤 宗厚 著.
東京, 理想社, 1960.
151 p. 21 cm.

어쨌든 이러한 方式으로 目錄을 作成하는 圖書館에서는 日書を 별도로 취급하여 かな順으로 排列하게 됨으로 日어나 日語에 能通한 사람을 위해서는 매우 便利한 方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수반된다. 우선 日語에 能通한 整理要員을 別途로 採用해야 한다. 그러므로 小規模의 圖書館에 서는 不的當하다. 說令 日語에 能通한 整理要員을 採用하여도 거의가 非 專門職이어서 時間과 經費를 들여서 司書教育을 받게 해야 하는 不便한 점도 있다.

또 이와 같이 かな로 標目を 表記하게 되면 目錄編成의 多元化를 가져 오므로 좋지 않다. 目錄編成은 單元化되는 것이 理想的이기 때문이다. 西書는 우리와 言語體系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方法을 동원하여 도 著者나 書名을 劃一的으로 한글로 表記하여 單元化된 目錄을 編成하 기란 不可能하지만 日書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日書의 標目 을 かな로 表記하여 別途의 目錄으로 編成되게 하는 것은 非能率의이다. 뿐만 아니라 國內에 들어 오는 日書는 主된 目的이 國內人을 위한 것 이므로 かな로 表記하여 かな順으로 排列하는 것은 우리의 實情에 맞지

4 韓國비블리아 第4輯

않는다. 왜냐하면 日書를 閱覽코자 하는 사람 중에는 日語에 未熟한 國內人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かな로 編成된 目錄으로 圖書를 檢索하는데 많은 不便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주 檢索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 標目を 로마자로 表記하는 것

著者나 書名을 日本音으로 읽어 로마자로 標目を 表記하는 方法이다.

예) Watanabe Seikaku
와다나베, 세이카쿠.
學校圖書館概要, 渡邊 正亥 著.
東京, 學校圖書, 1975.
151 p. 21 cm.

西書의 標目は 한글로 一貫性있게 表記하기가 不可能하지만 國內書나 日書의 標目は 위의 예와 같이 統一된 양식으로 로마자로 表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國內書나 日書의 標目を 로마자로 表記하게 되면 西書와 單一化된 目錄編成이 可能해 진다. 圖書館에 따라서는 國內書는 제외하고 日書만 로마로 표기하여 西書目錄과 混合 編成하는 곳도 있다. 어쨌든 目錄編成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便利하다.

그러나 이 方法은 로마로 바꾸는 과정에서 細心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誤記를 범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로마자를 모르면 아무리 日語에 能通하여도 圖書의 檢索이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이런 目錄은 國內人에게는 물론 日本人에게도 不便한 方法이므로 권장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본다. 역시 이 方法대로 하더라도 日語에 능숙한 整理者가 있어야 한다.

C. 標目を 한글로 표기하는 것

한글로 標目を 表記하는 데는 두가지 方法이 있으니, 그것은 日本音으로 읽어 表記하는 것과,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表記하는 것이다.

1. 標目を 日本音 式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것

日書の 著者나 書名을 日本音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方法으로 우리에게 아주 理想的인 方法이다.

예) 이토오, 하지메.

飛行の原理, 伊藤 一 著.

東京, 富士出版社, 1941.

253 p. 22 cm. (最新飛機講座, 第4卷)

西書の 著者나 書名도 統一된 形式으로 表記가 可能하다면 標目を 위의 예와 같이 한글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의 여건으로 보아 이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些少한 外來語 하나를 한글로 表記하더라도 千態萬樣인 처지에 人名까지 統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日書の 著書나 書名의 표목도 日本音으로 읽어 一定한 形式의 한글로 表記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人名標目인 경우 人名辭典이나 著者名便覽에 나오는 것은 統一된 形式으로 한글 表記가 可能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整理者가 적당히 表記하여 버리기 때문에 時間에 따라, 사람에 따라 表記樣相이 달라지는 것을 왕왕 본다. 高名치 못한 著者나 新進 著者가 상당한 數에 달하는데 參考文獻에 안나오는 것이 通例이다. 이러한 著者를 적당히 表記하여 버리면 갈수록 더 큰 混亂을 累積시킬 뿐이다. 最善策으로 안되던 次善策을 강구하는 것이 賢名한 方法인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와 같이 한글로 表記해야만 日人 閱覽者들도 쉽게 圖書를 檢索할 수 있다고 東問西答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것은 日本音에 쫓아서 標目を 表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글로 된 이상 日人에게는 圖書檢索이 不可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어쨌든 이 方法이 理想的이긴 하지만 表記가 어렵기 때문에 統一性을 기할 수 없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勿論 日語에 능숙한 정리지자만 있으면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標目を 우리음 식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것

6 韓國비블리아 第4輯

日書의 著者나 書名을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하는 方法으로 우리에게 現實的으로 便利한 方法이다.

예)

소야, 츝쑤.

日本文庫史研究, 小野 則秋 著.

東京, 大雅堂, 1944.

725 p. 22 cm.

目錄이란 排列을 前提로 해야 하기 때문에 標目은 明確한 統一된 樣式으로 表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日書의 著者나 書名은 위의 예와 같이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하는 것이 훨씬 便利하다. 或者은 이것을 퇴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過去로 되돌아 가는 表記方式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標目の 統一을 가져 오는 데는 더 없이 좋은 方法이므로 退步가 아니라 오히려 進展인 것이다. 進전이란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著者名標目을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하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거의 書名標目은 日本音에 쫓아서 表記하거나 아니면 漢字로 된 것은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하고, かな로 된 것은 日本音대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를 하게 됨으로써 漢字와 かな가 混用된 書名을 表記할 경우에는 쉽게 理解가 되지 않는 問題點이 있다.

Ⅲ. 現實的인 問題點

著者名標目이든지 書名標目이든지 かな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理想的인 方法이란 것은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表記하는데 있어서는 現實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수반된다. 그 問題點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 整理者와 閱覽者의 日語解得 能力 問題

現下 各 圖書館에서 日書整理를 담당하고 있는 司書들은 대부분 8.15-

解放以後에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日語에 미숙하다. 그들은 대개 40代中盤 以前으로 4年制大學 圖書館學科 卒業者와 4年制大學을 卒業하고 1年間 司書教育을 받은 사람들이다.

圖書館學科 出身者들은 在學時 日語를 4學點~6學點정도 취득하였다. 일찍부터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中堅司書を 배출한 大學은 延世大學校(1957), 梨花女子大學校(1959), 中央大學校(1963), 成均館大學校(1964)이다. 이들 大學이 實驗大學으로 운영되기 전에 教育課程에 배정된 日語時間을 보면 延世大學校가 6學點, 中央大學校가 4學點, 成均館大學校 6學點이며 梨花女子大學校는 專攻科目에 開設되지 않았다.¹⁾

어쨌든 이 정도로 日語를 배웠다면 初級을 벗어 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學校에서 배운 日語를 가지고 圖書館에서 日書를 整理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日書의 整理는 대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差誤가 많을 것이다.

그 후 이들 大學이 實驗大學으로 運營되면서 日語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니 延世大學校가 12學點, 中央大學校가 12學點, 成均館大學校가 9學點이며 梨花女子大學校는 역시 專攻科目에 開設되지 않았다.²⁾ 물론 다른 大學에서도 圖書館學科가 많이 新設되었는데 日語에 대한 學點은 前記한 大學들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그 전에 비하여 學點을 다소 늘리기는 했으나 日書를 만족하게 整理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日書의 著者名標目이나 書名標目を かな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는 한 두고 두고 整理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過誤는 累積될 것이다.

또 解放前 日帝下에서 教育을 받아 日語에 能熟한 사람들은 대개 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實務를 떠나 管理職을 맡고 있으므로 日書整理에는 直接 關與차 않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日書整理에 새로운 方案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圖書館이 많으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 分明하다.

뿐만 아니라 圖書館 利用者 中에는 日語에 未熟하더라도 日書를 閱覽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특히 大學圖書館이 代表的이다. 요즘 大學生이나 大學院生들은 卒業論文을 쓰기 위해서 겨우 日語를 배워가지고

1) 1966年度 教育課程 參照

2) 1979年度 教育課程 參照

論文의 題名을 定하고, 參考文獻을 달며,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은 日語 能通者에게 물어서 論文作成 도움을 받고자 하여 日書를 찾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쩌면 日書 閱覽者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日語에 能熟한 사람보다 많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처럼 圖書館 利用者 중에는 日語에 未熟한 사람들이 예상 外로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閱覽對策도 아울러 講究해야 될 實情이다.

B. 表記傾向

現在 各國의 外國人 姓名의 表記傾向을 보면 대개 自國語 爲主로 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인 日本의 경우를 보면 우리 나라 사람의 姓名을 순수한 日本音式으로 읽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安重根을 「안쥬우콩(あんじゅうこん)」으로, 蔣介石을 「쇼오카이세키(しょう かいせき)」로 읽어준다.

中國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人名이나 語彙를 가장 철저히 自國語化 시키는 나라는 中國일 것이다. 人名을 예로 들면 金丸을 「진주우」로, 李範錫을 「리판시」로 읽는다.

英美의 경우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外國人名을 自國語式으로 읽어준다. 이를테면 호메러스(Homerus)를 호머(Homer)로, 에스킬러스(Aeschylus)를 에스킬로스(Aischylos)로 읽는 것은 原音에 쫓는 것이 아니라 英美式 즉 英語를 쫓는 表記이다.

獨逸에서도 역시 外國人名을 自國語式으로 읽어 준다. 獨逸과 英國이 처음 同君聯合을 이루었을 때의 왕인 조오지 I세(George I)를 獨逸에서는 게오르게 I세로 읽는다. 同君聯合이라고 하면 각각 별개의 두 나라가 서로 獨立을 침범하지 않고 동일한 君主를 추대하여 聯合해 있는 것으로 身上聯合이라고도 하는데 英國에서 몇 번 있었다. 前記한 조오지 I세는 원래 獨逸人으로 英國의 王位繼承法에 의하여 英國王이 되어서 兩國의 王을 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兩國에서 자기 자기 나라식으로 읽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外國人名을 自國語式으로 읽고, 表記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이다. 아직까지 外國人名을 自國語式으로 읽고, 表

記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母國語式으로 읽어 주는 수가 있으나 극히 드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읽기 어려운 日本人名을 우리 漢字音으로 表記하여 目錄을 作成하면 아주 便利할 것이다.

韓國目錄規則 第51條에 보면 外國人名의 標目表記에 대하여 「他國語形의 文字 또는 綴字를 使用한 著者名은 原則的으로 그 著者의 母國語形 文字 또는 綴字를 標目으로 하고 그 圖書에 表示된 形名으로부터 參照한다.」³⁾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나라에서 읽고, 表記하기에 便利한 方向으로 전환하는 것이 目錄의 作成, 排列 및 檢索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다행히 우리 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固有名詞는 우리말로 읽어 주자는 主張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국어국문학회 주체로 1975年 6月 7,8日 兩日間 淑明女子大學校에서 開催된 「전국국어국문학연구발표대회」에서 漢字語로 表記된 固有名詞의 경우 우리말로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東京을 토요일로 하는 것보다 동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⁴⁾ 이것은 固有名詞의 表記를 우리 實情에 맞게 表示하자는 것이므로 특히 目錄作成에 反映시키면 整理나 檢索에 아주 便利할 것이다.

Ⅳ. 日書目錄에 있어서의 標目表記의 方案

日書目錄에서 人名標目を 한글로 翻字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理由를 살펴 보고, 아울러 書名標目的 表記方案도 提示하여 日書目錄 作成에 參考가 되게하고자 하는 바이다.

A. 人名標目

日本人名은 文字의 構成에 의해서 살펴 보면 漢字로만 된 것이 대부분이고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漢字로만 된 人名

3)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서울, 1970. p. 38.

4) 京郷新聞 1975. 6. 11. 5面.

10 韓國비블리아 第4輯

은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번자표기하면 目錄作成을 迅速 精確하게 할 수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 번자표기하여 보자.

加藤宗厚 : 가등중후(カトウ シュウコウ, 카토오 슈우코, Katô Shûkô).

岡本秀夫 : 강본수부(オカモト ヒデオ, 오카모토 히데오, Okamoto Hideo).

高橋一郎 : 고교일랑(タカハシ イチロウ, 타카하시 이치로오, Takahashi Ichirô).

金山政英 : 금산정영(カナヤマ マサヒデ, 카나야마 마사히데, Kanayama Masahide).

今西龍 : 금서룡(イマニシ リュウ, 이마니시 류우, Imanishi Rjû).

吉田正男 : 길전정남(ヨシダ マサオ, 요시다 마사오, Yoshida Masao).

能本重吉 : 능본중길(ノモト ジュウキチ, 노모토 쥬우키치, Nomot Zûkichi).

大野典子 : 대야전자(オオノ ノリコ, 오오노 노리코, Ôno Noriko).

徳川宗敬 : 덕천종경(トクガワ ムネヨシ, 토쿠가와 무넬요시, Tokugawa Muneyoshi).

木村恵吾 : 목촌혜오(キムラ ケイゴ, 키무라 케이고, Kimura Kêgo).

富士川英郎 : 부사천영랑(フジカワ ヒデオ, 후지카와 히데오, Huzikawa Hideo).

北原武夫 : 북원무부(キタハラ タケオ, 키타하라 타케오, Kitahara Takeo).

山口和子 : 산구화자(ヤマグチ カズコ, 야마구치 카즈코, Yamaguchi Kazuko).

山中徳二 : 산중덕이(ヤマナカ トクジ, 야마나카 토쿠지, Yamanaka Tokuzi).

森克己 : 삼극기(モリ カツミ, 모리 카츠미, Mori Katsumi).

위의 例와 같이 日本人名은 대부분 漢字로만 되어 있어서 判호 속에서 각각 표시된 日本音式으로 表記하는 것보다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

로 翻字表記하는 것이 훨씬 쉽다. 各 圖書館에서 發行되고 있는 日書目録을 보면 日本著者名索引은 반드시 한글 가나다순으로 排列된 것이 別途로 붙어 있으니, 이것은 日本著者名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한글로 번자표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은 著者名標目에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かな로 된 部分을 일단 해당 漢字를 확인하여 번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加藤シズエ: 加藤下枝, 가등하지(カトウ シズエ, 카토오 시즈에, Katô Shizue).

江上フジ: 江上不二, 강상불이(エガミ フジ, 에가미 후지, Egami Huzi).

高良とみ: 高良富, 고허부(コウラ トミ, 코오라 토미, Kôra Tomi)
白畑よし: 白畑由, 백전유(シラハタ ヨシ, 시라하타 요시, Shirahata Yoshi).

星野あい: 星野愛, 성야애(ホシノ アイ, 호시노 아이, Hoshino Ai).
小池上ハル: 小池上春, 소지상춘(コイケガミ ハル, 코이케가미 하루, Koikegami Haru).

安東てい: 安東貞, 안동정(アンドウ テイ, 안도오 테이, Andô Tei).
中本たか子: 中本高子, 중본고자(ナカモト タカコ, 나카모토 타카코, Nakamoto Takako).

池田みち子: 池田道子, 지전도자(イケダ ミチコ, 이케다 미치코, Ikeda Michiko).

初井しづ枝: 初井下枝, 초정하지(ハツイ シズエ, 하츠이 시즈에, Hachui Shizue).

秋元たけ子: 秋元竹子, 추원죽자(アキモト タケコ, 아키모토 타케코, Akimoto Takeko).

出口なお: 出口直, 출구직(デグチ ナオ, 데구치 나오, Deguchi Nao).
平林たい子: 平林體子, 평림체자(ヒラバヤシ タイコ, 히라바야시 타이코, Hirabayashi Taiko).

河崎ナツ: 河崎夏, 하키하(カワサキ ナツ, 카와사키 나츠, Kawasaki Natsu).

鮎澤まこと：鮎澤實，점택실(アユザワ マコト， 아유자와 마코토， Ayuzawa Makoto).

위의 예와 같이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은 소수에 불과하다. 現在 各 圖書館에서 日書整理에 많이 參考하고 있는 日本著者名便覽⁵⁾에 보면 18,000餘名の 著者가 收錄되어 있는데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은 30個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著者名 때문에 모든 著者名을 괄호 속에 각각 표시된 日本音式으로 表記를 하다가 보면 그로 인한 過誤가 그것보다 몇 갑절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現在 그와 같은 方法으로 目錄을 作成하는 圖書館의 目錄을 調査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理想的으로 目錄을 作成하려고 하다가 많은 過誤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덜 合理的이라도 過誤를 없애는 方法으로 目錄을 作成하는 것이 現實的인 方法일 것이다.

現在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の 標目を 表記하는 方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漢字로 된 부분은 우리음 식으로 表記하고, かな로 된 부분은 일본음 식으로 表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著者名 全體를 日本音式으로 表記하는 것으로, 前者는 一貫性이 없다고 하여 대개 後者의 方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後者의 方法을 취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도 著者名標目 全體를 두고 볼 때 一貫性이 없는 것이다. 即 漢字로 된 著者名標目은 우리음 식으로 表記하고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標目은 일본음 식으로 表記하는 것은 目錄을 全體적으로 볼 때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 問題만 解決되면 日書를 整理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方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筆者가 未洽하나마 前記한 예와 같이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은 かな로 된 部分을 우리말 해당 漢字音으로 바꾸어 번차표기를 하는 方案을 마련하여 본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日本式 漢字도 우리음으로 바꾸어 표기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음으로 읽어 주지 못하는 日本式 漢字가 있어서 문제이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方法은 그러

5) 孫成祐 編. 日本著者名便覽. 서울, 汎韓書籍, 1973. 參照

한 漢字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現在 日本式 漢字로 확실한 것은 79字가 있는데,⁶⁾ 이 중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이 75字이다.⁷⁾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자.

梯(제)	働(동)	爪(목)	爪(지)	峠(상)	崩(명)
柚(산)	栴(화)	椽(천)	桴(창)	櫛(신)	栴(모)
櫛(견)	栴(정)	椽(품)	桴(전)	桴(전)	桴(정)
筐(세)	苎(택)	苎(칩)	粳(인)	粳(화)	鮑(보)
螳(등)	駘(정)	禪(필)	禪(거)	駘(정)	躬(분)
駘(인)	駘(미)	駘(공)	駘(응)	辻(십)	込(입)
迎(중)	通(남)	鎗(송)	鎗(원)	鎗(원)	鎗(화)
鎗(견)	問(산)	鞞(병)	鞞(산)	鮓(천)	鮓(약)
鯛(이)	鯛(설)	鯛(어)	鯛(주)	鯛(로)	鯛(니)
鯛(동)	鯛(강)	鯛(회)	鯛(병)	鯛(곤)	鯛(혜)
鯛(애)	鯛(성)	鯛(애)	鯛(치)	鯛(복)	鯛(서)
鯛(입)	鯛(리)	鯛(입)	鯛(행)	鯛(전)	鯛(판)
鶇(중)	鶇(각)	鶇(마)			

우리 음으로 읽을 수 없는 日本式 漢字는 다음 4字인데,⁸⁾ 그것을 音, 訓 및 字形에 의해서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梶(색)	鑑(진)	鑪(배)	鶇(조)
------	------	------	------

또 日本式 漢字로 여겨지나 확실치 않는 것도 44字가 있다.⁹⁾ 그 중 10字는 日本音으로 읽을 수 있으나¹⁰⁾ 나머지 34字는 전혀 읽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 44字는 使用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말로 읽을 수 없어도 問題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字가 著者名에 使用되었다면 우리말로 읽는 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前述한 方法으로 音을 붙이는데는 斯界의 권위자에게 諮問을 구하여

6) (日本)國語學會 編. 國語學辭典. 東京堂出版, 昭和 54(1979) p. 430.
 7)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서울, 省文社, 1964. 및 張三植 編者. 大漢韓辭典 서울, 博文出版社, 1964. 參照.
 8) (日本)國語學會 編. 前掲書, p. 430.
 9) 上掲書, p. 430.
 10) 上掲書, p. 430.

하였으나 的確性 여부는 두고 두고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拙稿에서 問題解決의 실마리만 提示하고자 할 뿐이다. 이것은 앞으로 全圖 書館人이 解決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式 漢字를 우리음으로 바꾸는 것을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漢字는 우리나라, 中國, 日本 등에서 共用되나 同一한 글자라도 各國에서 自國人에게 便利하게 바꾸어서 읽고 表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筆者가 現在 우리음으로 表記할 수 없는 日本式 漢字를 우리음으로 表記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現在로서 通用性이 없는 것 뿐이다. 만약 교과서에서 日本人名을 과거와 같이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譯字表記하려면 이 方法을 研究 發展시켜야 될 것이다.

어쨌든 日書目錄에서 著者名標目の 表記를 이렇게 하여 주면 一貫性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著者名標目을 實用的하면서도 合理的으로 表記하기 위해서는 이 方法 外에 다른 妙案은 없을 것이다. 결국 별로 利用되지 않는 日本式 漢字 4個만 우리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바꾸어 表記하면 이처럼 便利하다. 그런데 이런 漢字 몇 개 때문에 數萬個의 漢字를 全部 日本音 式으로 表記를 하다 보면 무수한 誤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런 한자를 사용한 저자명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이나 かな로만 된 著者名으로 漢字形名을 알 수 없는 것은 全體를 日本音式으로 읽어 表記하여도 되고, 漢字로 된 부분은 우리 漢字音으로 表記하고, かな로 된 부분은 日本音으로 表記하여도 되는데, 그것은 정리자의 재량대로 하면 될 것이다. 妙案이 없어서 이렇게 表記하는 것과, 妙案이 있는데 不得已하여 이와 같이 表記하는 것은 根本이 다르다. 現在 各圖書館에서 妙案이 없어서 그러한 便法을 쓰는 것은 그 分野에서는 通用될 수 있겠지만, 다른 分野에서는 通用 可能性도 없고 또한 共感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이 基本記入標目으로 될 경우에 있어서 目錄作成의 예를 들어 보자.

예) 대강, 목.

禮儀作法全集, 大江 すみ〔墨〕
編. 東京, 中史公論社. 昭和
13(1938)

삼, 청자.

資料分類法概論, もり・きよし
〔森 清子〕著. 改訂版. 東京,
理想社, 昭和 54(1979)

그리고 外國人著者が かな로 나타난 것은 標目の 表記를 우리 나라에 서 읽는 方法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 理由는 日書目録에서 標目 을 한글로 表記하면 國內書의 目録과 混合排列이 되는데, 그것을 かな 로 읽어 한글로 表記를 하면 同一한 著者の 表記가 二元化가 되기 때문 이다.

B. 書名標目

日書의 著者名標目は 우리음 식으로 읽어 한글로 表記하여 주면 資料의 整理나 檢索에 便利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書名標目도 그것에 준 하여 우리음 식으로 表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書名은 人名과 달라서 かな로 된 部分을 漢字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一貫性 있는 翻字表記가 不可能하다. 이를테면 「新しい農業政策學」이란 書名에서 「しい」와 같이 かな로 된 部分은 漢字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圖書館에서는 이런 書名을 「신시이농업정책학」이란 식으로 表記하고 있으나 전혀 合理性이 없는 것이다. 人名에는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것이 있으나 하나의 意味를 가진 語彙가 그렇게 構成된 것은 없기 때문에 かな로 된 部分을 日本音 式으로 表記할 수도 있는 것이다. 即 姓은 우리 漢字音으로 表記하고, 人名의 한 자 한 자는 日本音 式으로 表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書名에는 하나의 意味를 가진 語彙가 かな와 漢字로 構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읽어 表記를 하게 되면 앞에 든 例와 같이 우리음 식도 아니요, 일본음 식도 아니므로 전혀 意味가 통하

지 않게 된다. 즉 「及び」를 「급비」로, 「に於ける」를 「니어게루」로 表記:를 하면 무슨 말인지 理解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日本音式으로 바꾸어 表記를 좀 나올 것이다. 이를 보면 「繪畫及び彫刻」이란 책을 「회화급비조각」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회화오요비조각」이라고 표기를 하는 편이 더 나올 것이다. 그것은 日常의 言語 生活에서 外來語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면 意味는 통할 수 있으나 一貫性이 없으므로 書名全體를 번역하여 완전히 우리화 시켜서 表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日書名에도 漢字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상당수가 우리말과 共用된다. 그러므로 翻譯하기도 다른 外國書名에 비하여 쉬운 편이다.

日書名의 構成類形을 살펴 보면 漢字로만 된 것, 漢字와 かな가 混用된 것, 그리고 완전히 かな로만 된 것으로 區分되는데 이것들은 翻譯하여 한글로 表記하여 보자.

먼저 漢字로만 된 書名을 번역하여 表記하여 보자.

新圖書館學概論: 신도서관학개론(シントシヨカンガクガイロン,
신토쇼칸가쿠가이론, Shintoshokangakugairon).

目錄學汎論: 목록학범론(モクロクガクハンロン, 모쿠로쿠가쿠한론,
Mokurokugakuhannon).

件名目錄: 전명목록(ケンメイモクロク, 켄메이모쿠로쿠, Kenmei
mokurok)

日本著者記號表: 일본저자기호표(ニホンチヨシキゴウヒョウ, 니
혼쇼사키고오호오, Nihonchoshakigôhyô).

學校圖書館事典: 학교도서관사전(ガッコウトシヨカンジテン, 각코
오토쇼칸지텐, Gakkôtoshokanjiten).

國會圖書館例規集: 국회도서관예규집(コッカイトシヨカンレイキン
シュウ, 독카이토쇼칸레이키슈우, Kokkaitoshokanreikishû).

參考圖書: 참고도서(サンコウトシヨ, 산코오토쇼, Sankôtoشو).

時事百科: 시사백과(ジジヒャッカ, 지지학카, Zizihyakka).

情報用語辭典: 정보용어사전(シヨウホウヨウゴジテン, 쇼호호오
오고지텐, Jôhōyôgojiten).

新聞亡國論: 신문망국론(シンブンボウコク론, 심붕보오코쿠론,

Shinbunbôkokuron).

現代哲學思潮 : 현대철학사조(ゲンダイテツガクシチュウ, 겐다이테츠가쿠시초오, Gendaitetsugakushichô).

形而上學 : 형이상학(ケイジジュウガク, 케이지쥬오가쿠, Keijijôgaku)

現代日本社會論 : 현대일본사회론(ゲンダイニホンシャカイ론, 겐다이니혼샤카이론, Gendainihonshakairon). 「kuhatsu」.

人口爆發 : 인구폭발(シンコウバクハツ, 징코오바쿠하츠, Zinkôba-

都市經營論 : 도시경영론(トシケイエIRON, 토시케이에이론, Toshi-keieiron).

이와 같이 漢字로 된 書名은 대개 翻字表記하면 거의 翻譯이 된다. 이런 書名은 우리음 식으로 읽는 것이 통례이므로 오히려 判호 속에 각 표기된 日本音 式으로 읽어 表記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에는 漢字와 かな가 混用된 書名과 완전히 かな로만 된 書名을 翻譯하여 表記하여 보자.

朝鮮歴史と風土 : 조선역사와 풍토(チュウセンレキシトフウド, 초우센레키시토후우도, Chôsenrekishitofûdo). 「sennosenska」.

朝鮮の戦火 : 조선의전화(チュウセンノセンカ, 초우센노센카, Chô-个新しい地方行政と組織 : 새로운 지방행정과 조직(アタラシイチホウギョセイトソンキ, 아타라시이치호오교세이토소시키, Atarashiichihôgyoseitososhiki).

劍道に於ける道 : 검도예의 길(ケンドウニオケルミチ, 켄도오니오케루미치, Kendôniokerumichi).

泰西の繪畫及び彫刻 : 서양의 회화 및 조각(タイセイノカイガオヨビチュウコク, 타이세이노카이가오요비쥬오코쿠, Taiseiseionkaigaoyobichôkoku).

歴史の跡を尋ねて : 역사의 유적을 찾아서(レキシノアトラタズネテ, 레키시노아토오타즈네테, Rekishinoatootazunete).

西洋の書物 : 서양의 서적(セイヨウノショモツ, 세이요오노쇼모츠, Seiyônoshomotsu).

シリーズ圖書館の仕事 : 시리즈도서관의 업무(シリーズトショカンノシゴト, 시리즈토쇼칸노시고토, Seriestoshokannoshigoto).

ルナルを語る : 르느와르를 말한다(ルナルヲカタル, 르느와르오 카타루, Renoirokataru). 「리벵엔에, Toshiyoriidenene」.

都市より田園へ : 도시에서전원으로(トシヨリデンエンへ, 토시요↑燃える石 : 불타는 암석(モエルイシ, 모에루이시, Moeruishi).

兒童の教育上心得べき母の知識 : 아동의 교육상주의 해야 할 어머니의 지식(ジドウノキョウイクジョウココロエベキハハノチシキ, 지도오노쿄오이쿠조오코코로우베키하하노치시키, Zidônokyôikuzyô: kokoroubekihahanochishiki).

序に冠して作文上の經驗を述る : 서문에 붙여 작문상의 경험을 말한다(ジョウニカクシテサクブンジョウウノケイケンヲノベル), 조니칸시테사쿠분조오노케이켄오노베루, Jonikanshitesakubunjônokeikenonoberu).

情報處理ハンドブック : 정보처리핸드북(ジョウホウシヨリハンドブック, 조오호오쇼리한도북쿠, Jôhôshorihandobukku).

ところてん : 우뚝가사리(心太), (토코로텐, Tokoroten).

위의 例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書名인 경우에도 우리말과 同一한 漢字語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書名 역시 翻譯하여 表記하면 便利하다.

만일 괄호 속 각각 표시된 日本音 式으로 表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日 書는 目錄作成에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日書가 들어온지 오래되어도 未整理 狀態로 있는 圖書館을 많이 본다. 圖書는 어떠한 方法으로도 일단 整理가 되면 利用이 가능해 진다. 그러니까 圖書館에 受入된 책은 一慣性있게 빨리 整理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迅速 精確하게 整理를 하자면 書名標目은 翻譯하여 表記하면 될 수 있다. 그런데 理想的으로 하기 위하여 書名標目を 日本音 式으로 表記하게 되면 人名標目처럼 심하지는 않으나 表記에 상당한 過失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例로 든 書名을 괄호 속 각각 표시된 日本音 式으로 表記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30個의 書名에 불과하지만 短時間에 自信있게 表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中國書名의 標目は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譯表記를 하여서 그 便利함을 인정 받은 지 이미 오래이다. 그렇다면 우리말과 同一한 漢

字語가 많은 日書名의 標目에 이 方法을 적용시켜서 翻譯하여 表記하여도 異常할 것이 없을 것이다. 中國書의 標目을 翻字하여 表記하는 주된 理由는 中國語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圖書館에서 中國書의 整理가 遲帶되었다거나 檢索이 어려워 閱覽하지 못했던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日書目錄에서 書名標目を 翻譯하여 表記를 하면 이와 같은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日語에 能熟한 司書가 있으면 標目を 日本音 式으로 表記하면 좋을 것이다.

書名을 번역하여 표기할 경우 翻譯語의 選擇에서 오는 차이는 日本音 式에 쫓아서 표기하는 努力의 數十分之一만 기우려도 얼마든지 克服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書名에 使用된 用語는 다양하지 못하므로 큰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다. 些少한데 神經을 쓰다 보면 큰 것을 損傷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書名の 번역은 表記의 混亂을 방지하기 위하여 直譯을 하여 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일본 한자어는 그대로 번자표기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圖書館業務는 閱覽爲主로 되어야 좋지만, 경우에 따라선 事務上 便利한 點도 고려되어야 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書名の 全部 또는 一部가 外來語로 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읽는 식으로 表記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日本音 式으로 表記하는 것보다 우리음 식으로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V. 結 論

現在 各圖書館에서 作成되고 있는 日書目錄의 標目表記에 대하여 分析檢討하여 보고 著者名標目は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翻字表記를 하고, 書名標目は 우리말로 翻譯表記를 하는 方式이 좋다는 것을 提示하여 보았다. 그 理由는 일본음 식으로 表示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缺點이 있기 때문이다.

① 日書目錄의 標目を かな로 表記하는 것은 日語에 能通치 못한 整理者에게는 目錄作成에 많은 過誤를 범하기 쉬우며, 또 日語에 能通치 못한 利用者에게는 目錄檢索이 어려운 것이다.

② 標目の表記를 로마자로表記를 하면 整理者는 다시 한번 神經을 써야 하며, 또 利用者는 아무리 日語에 能熟하더라도 로마자를 모르거나, 그것의 表記方式을 모르면 資料의 檢色이 곤란해진다.

③ 日本音으로 읽어 한글로 標目を表記하는 것은 역시 日語에 能熟치 못한 整理者나 利用者에게는 不便하므로 目錄作成이나 資料檢索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前述한 바 있는 日書目錄에 있어서 標目の表記方式을 提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著者名標目の表記方式부터 살펴 보자.

① 漢字로만 된 著者名은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한글로 翻字表記한다.

② かな와 漢字가 混用된 著者名은 かな로 된 部分을 해당 우리 漢字音으로 바꾸어 翻字表記한다.

③ 우리음으로 읽을 수 없는 日本式 漢字는 音, 訓 및 字形에 의해서 일단 우리음으로 바꾸어 翻字表記한다.

④ 人名에서 かな로 된 部分을 漢字로 바꾸는 것이 曖昧하면 그 部分을 かな로 읽어 한글로表記하여도 되고, 人名全體를 かな로 읽어 한글로表記하여도 된다.

⑤ 外國人著者는 우리나라에서 읽는 音대로表記한다.

다음에는 書名標目の表記方式을 살펴 보자.

① 書名은 翻譯하여表記한다.

② 日本 漢字語로 翻譯하지 않아도 通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翻字表記하는 形式으로表記한다.

③ 書名이 外來語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部分的으로 外來語로 되어 있는 것은 人名標目の 경우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읽는 方式으로表記한다.

이상과 같은 方法으로 人名標目이나 書名標目を表記하면 誤記를 最小限으로 줄일 수 있어서 目錄의 作成, 排列 및 檢索에 아주 便利하다. 日語에 能熟한 사람이 日本音 式으로 읽어 포기하는 것보다 日語에 未熟한 사람이 이와 같은 方法으로表記하는 것이 錯誤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方法은 日語에 未熟한 整理者나 閱覽者에게 便利하다. 現在 各 圖書館에서 日書整理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解放以後에 敎育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日語에 未熟하다. 그래서 日書整理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

라 閱覽者 중에는 日語에 未熟한 사람들이 參考資料를 구하기 위하여 日書를 閱覽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러한 整理者나 閱覽者를 위해서는 日書目錄 作成時 著者標目的 表記는 우리 漢字音으로 읽어 翻字表記하여 주고, 書名標目的 表記는 우리말로 翻譯表記하여 주면 便利하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日本)國語學會 編. 國語學辭典. 東京, 東京堂出版, 昭和 54(1979)
- 2) 국제도서관연맹 제정.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 리재철, 현규섭 역주,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 3) 朴熙永, “東書目錄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도협월보, Vol. 14, No. 5, 1973. pp. 11~18.
- 4) 三省堂編修所 編. コンサイス人名辭典: 日本編. 東京, 1930.
- 5) 少野則秋. 圖書目錄の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2.
- 6) 孫成祐 編. 日本著者名便覽. 서울, 汎韓書籍, 1973.
- 7) 日本圖書館協會. 日本目錄規則. 東京, 1965.
- 8) 日本圖書館協會. 整理技術テキスト. 東京, 1964.
- 9) 張一世. “[韓國目錄規則]에 관한 質疑에 대한 解答”, 도협월보, Vol. 15. No. 4~5, 1974. pp. 12~15, pp. 21~23.
- 10)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 1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1966.
- 12) 韓淳晶. “英美目錄規則 第6章의 改訂規則과 前規則과의 變更事項 比較檢討”, 圖書館 第5輯, 1978.
- 1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1967.
- 14) I.F.L.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 Preliminary official report, Paris. 9~10th. Oct., 1961.
- 15) U.S. Library of Congress. A Cataloging of Chinese local Histories in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U.S. Govt. Print. Off., 1942.
- 16) U.S. Library of Congress. A descriptive catalog of rare Chinese books in the Library of Congress, comp. by Wan Chun-min. Washington, 1957.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 about entry of headings in Japanese book cataloging

by Kim, Chi-woo

It was analysed and considered about entry methods of headings in Japanese book cataloging which using methods of major universities and public libraries in our nation at present. I was suggested and clarified one's position that authors heading must make an entry to our pronunciation after translating from sound of chines letters, title headings must make an entry translation from Japanese title or Chinese title to Korean. On the cataloging of authors heading or title heading, if cataloging make an entry to Japanese pronunciation it have many faults as follow.

(1) In the title and authors heading of Japanese books, if it make an entry as Kana letter, not only non skilled librarian at Japanese language will have many faults but also non skilled users to Japanese language or pronunciation will very difficult to reference in title and authors catalog card.

(2) If it Romanize the catalog card of title and authors heading in the Japanese books, librarian of the catalog part will make efforts and take pains to the catalog work. In addition, catalog users which is skilled in Japanese language but can not understand or unknown to the Romanized entry, and which if not understand to the methods of entry will very difficult to card investigation or can not refer to catalog card.

(3) If it make an entry to Korean in the authors and title heading from Japanese sound or pronunciation, librairans and library users which is unskilful as Japanese language will be inconvenience to works and investigation of library materials.